

음악교육전공 대학원생들의 교육대학원 교과과정 운영체제에 대한 만족도 조사

최진호*

본 연구의 목적은 교육대학원에 재학 중인 음악교육전공 석사과정 학생들을 대상으로(N=82) 교육대학원 음악교육 교과과정 운영체제와 수업들에 대한 만족도를 수요자 중심의 교과과정 내용접근(Curriculum Content Approach)의 측면에서 측정해 보는 것이었다. 더불어 음악교육전공생으로 공부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과 그 해결책을 함께 조사해 보았다. 본 연구 결과, 음악교육전공 대학원생들은 교수의 전문성, 교수의 가르침, 그리고 각 수업들의 미래의 유용성에 가장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원 수업에 대해 교수의 수업준비와 열의, 수업시간의 철저한 이행, 수업목표의 명료화를 가장 만족하는 요인으로 지적하였다. 음악교육전공 대학원생으로서 가장 어려운 점은 졸업논문에 대한 것으로, 참가자들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음악교육 전임교수의 확보와 논문작성에 필요한 음악연구방법론에 관련한 강좌를 많이 제공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 주제어: 음악교육, 교육대학원, 교과과정, 대학원 만족도

차 례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Participants)
2. 연구의 제한점 (Limitation)
3. 검사도구 (Questionnaire)
4. 결과분석 (Data Analysis)

IV. 연구 결과

V. 결론 및 제언

* 중앙대학교 대학원 강사

I. 서론

한국대학으로는 처음으로 이화여자대학에서 교수 강의평가제가 시행된 1994년 이래, 현재 한국의 거의 모든 대학에서 교수의 강의 평가는 대학 교육의 질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 중 하나로 자리잡아왔다. 특히 최근 몇몇 대학에서는 교수의 강의 평가 결과를 학생들에게 공시하게 하고, 연구업적과 함께 교수들의 연봉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함으로써 사회적인 찬반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교수의 강의 평가결과의 공개여부를 떠나 이제 학교와 교수들에 의한 일방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학습자 중심의 교육으로 이행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늘어난 대학 숫자와 출생률 저하에 의한 학령인구 감소는 한국대학들의 신입생 감소를 불러일으키고 있고, 교육과학기술부 주도의 대학 구조조정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학생유치가 대학의 사활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수요자 중심의 교육의 질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교수의 강의를 포함한 학교 시설 및 지원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대학의 발전에 중요한 척도의 하나로 자리 잡아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이상기, 조재준, 1999).

이러한 현상은 음악교육 대학원의 현실과도 다르지 않다. 한국의 많은 대학들이 이미 교육대학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음악교육전공을 포함하고 있다. 실제로 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하고 졸업한 많은 학생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직업의 안정성이 높은 교사가 사회적으로 선호되는 직업이 되면서 많은 음악대학 졸업생들이 교육대학원을 찾아 음악교사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음악교사가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우며, 앞에서 설명한 학령인구감소의 현실 등을 반영하면 앞으로 교육대학원에서 음악교사가 되기 위해 준비하는 학생의 숫자는 줄어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사실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교육대학원간의 학생유치 경쟁이 앞으로는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는 사실과, 각 교육대학원들은 생존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

들에게 만족할 만한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이선정, 신혜원, 2008).

수요자 중심의 교육의 질을 가늠할 수 있는 가장 보편화된 척도는 학생들의 교과과정에 대한 만족도 조사일 것이다(반상진 외, 2004).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들의 만족도 조사는 학교와 교수들의 의해 시행된 교육의 결과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에도 매우 중요하게 쓰일 수 있다. 예를 들면, 학교 교과과정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하면 현재의 교육의 질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이상기, 조재준, 1999).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에 있는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생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만족도 조사연구결과는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음악교육학회의 학회지인 음악교육연구에 출간된 논문들을 1973년 1호부터 2009년 37호까지 살펴본 결과, 음악교육전공생들의 교과과정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거의 실시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http://www.kmes.or.kr>). 이러한 점에서 현재 한국의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생들의 음악교육 교과과정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고, 앞으로 개선방향을 가늠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교육대학원 음악교육 석사과정 학생들의 교과과정 운영체제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해 보았고, 교육대학원에서 음악교육전공 공부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과 그 해결책을 조사해 보았다. 더불어 개인적 배경에서는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을 선택한 이유와 졸업 후 진로 계획 또한 조사해 보았다.

II. 이론적 배경

최근 한국사회에 있어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 강화는 매우 중요한 화두가 되어왔다. 실제로 교육이 한국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모든 교육제도가 대학을 향해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한국의 대학교육, 특히 대학원 교육의 질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인 것이 사실이다(황현주, 2000). 지금도 해마다 수많은 대학 졸업생들이 한국의 대학원을 외면하고 외국의 대학원으로 석, 박사 학위 취득을 위해 한국을 떠나고 있는 현실은 이러한 점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한국의 대학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대학원의 질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대학원의 질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대학원의 질을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대학원의 질을 판단하는 기준을 외적인 면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즉, 교수들의 박사학위 소지 여부, 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장서의 수, 대학원생들의 취업현황, 대학원생들의 학부성적, 대학이 보유한 건물이나 자산과 같이 눈에 보이는 외적조건들을 측정하여 대학원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다(Bergguist & Armstrong, 1986). 그러나 교수나 학교 측에서 제공한 교육의 성패는 최종적으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성취를 통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많은 선행연구들은 앞에 언급했던 외적 조건 이외에 대학원 질을 판단함에 있어 수요자 중심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신석현 외, 2008; 오영재 외, 2001; 황현주, 2000; Austin, 1985).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현주는(2000) 지금까지 한국의 대학들이 수요자 관점보다는 대학 측의 일방적인 입장에서 대학을 운영해 왔음을 밝히고, 그러한 대학 측의 일방적 운영이 대학과 대학원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어 왔음을 지적하였다. 더구나 이상기와 조재준에(1999) 의하면, 현재 한국사회가 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 빠르게 변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대학원의 수업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에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대학원의 수요자 중심의 교육의 질을 가늠할 수 있는 가장 보편화된 척도는 실제 수요자인 대학원생들의 교과과정에 대한 만족도 조사일 것이다(반상진 외, 2004). 특히, 이상기, 조재준은(1999) 교육대학원생의 만족도 조사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교육과정의 운영을 비롯한 교육체제의 평가와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경우 상황분석에 기초해야 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거니와, 교육대학원 교육체제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확인 평가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준거 집단과 기준은 교육의 직접적인 수혜자인 대학원생의 의견이다. 다른 교육대상자와는 달리 교육대학원생들은 대학원의 교육체제나 교육활동의 다양한 측면을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게 반응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p. 580).

특히,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들의 만족도 조사는 학교와 교수들의 의해 시행된 교육의 결과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에도 매우 중요하게 쓰일 수 있다. 예를 들면, 학교 교과과정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하면 현재의 교육의 질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것이다(이상기, 조재준, 1999).

아스틴은(Astin, 1985) 대학의 질은 교수-학습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대학 교육의 질을 외적조건으로 판단하는 세 가지 관점 즉, 대학의 순위를 우선하는 명성적 관점(Reputational View), 대학의 인적, 물적 자원을 통해 판단하는 자원적 관점(Resource View), 그리고 졸업생을 기준으로 하는 결과적 관점(Outcome View)에서 바라보기 보다는, 대학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과정에서의 교수-학습에 초점을 맞추는 교육과정 내용접근(Curriculum Content Approach)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대학원의 교과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교수-학습활동과 연관된, "수업내용, 학습량, 논문지도, 강의 수준, 강의준비도, 활용 교재, 활용되는 수업방법(신현석 외, 2008, p.55)" 등이 포함된다.

신현석과 공동연구자들은(2008) 대학원생이 인식하는 대학원 교육의 질 만족요인 탐색을 통해 전문성, 충실성, 개방성의 세 가지 범주를 제시하였다. 연구자들이 밝히고 있는 세 가지 범주를 살펴보면 먼저 전문성은 대학원 수업의 수준이 해당전공분야의 고도의 전문가를 양성하기에 충분한 전문성을 지녀야 하며, 학부의 수준과는 차원이 다른 수업이 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강의의 내용이 현장과 연결되어서 이론 강의 이외에 사례연구나 실습등과 함께 수업이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 하였다. 두 번째 충실성은 실제 대학원생의 의견이 강의 개설시 충분히 반영되어야 함을 의미하는데, 이는 교수의 강의를 철저히 준비되어 있고, 수업계획서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으며, 출결 사항을 포함한 모든 수업의 실재가 충실히 진행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개방성은 개설된 강의가 인접학문과의 교류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수강하고 싶은 과목들이 충분히 개설되어 다양한 학문적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직접적인 교수-학습활동(수업) 이외에 수요자 관점에서 대학원생들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요소들은 대학의 교과과정과 행정 서비스를 포함한 교육지원활동, 그리고 대학의 시설 및 대학 환경들이다(권대봉 외, 2002; 오영재 외, 2001). 이선정과 신혜원은(2008) 서울소재 가정교육 전공 교육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교수-학습활동과 행정서비스, 그리고 대학의 시설과 환경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하여 연구를 시행하여 의미 있는 결과를 얻었다.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교육대학원생들의 교과과정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실험 및 실습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개선안으로 교과전공 전임교수의 확보와 다양한 전공과목들을 개설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음악교육대학원생들에 대한 만족도 연구가 매우 제한적인 가운데, 미국 내 유학 중인 한국학생들의 미국음악대학에 대한 만족도 연구를 살펴보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최진호는(Choi, 2009) 미국 내 음악대학에 재학 중인 동아시아 유학생과 함께 한국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재 재학하고 있는 미국 음악대학의 프로그램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20개 문항을 다음의 7가지 내용을 근거로 제작하였다. (1) 학교의 명성에 대한 1개의 질문, (2) 장학금에 대한 1개의 질문, (3) 학교에서 가질 수 있는 전문가로서의 실습기회에 관

한 2개의 질문들, (3) 졸업 후 가질 수 있는 경력에 대한 5개의 질문들, (5) 교수에 대한 2개의 질문들, (6) 학교시설 및 기관에 대한 6개의 질문들, (7) 전체 미국 학교의 프로그램에 관한 3개의 질문들이었다. 그 연구 결과 미국 내 한국 유학생들은 대체로 미국 교과과정과 학교의 환경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세부 요소들을 살펴보면, 교수의 가르침, 교수의 전문성, 연주 실력의 향상, 전문적 음악인이 되기 위한 음악 프로그램의 내용, 그리고 연주기회 등이 가장 만족하고 있는 요소였으며, 가르칠 수 있는 기회, 교실환경, 학교식당의 음식, 국제학생처의 지원, 그리고 연습실 환경 등을 가장 만족하고 있지 않는 요소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같은 연구에서는 한국 학생들이 미국 음악대학원에 재학하는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 물어본 결과, 대다수의 학생들이 언어와 문화적 차이를 들었으며, 학비와 생활비를 포함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의 대한 해결책으로 한국 유학생들은 학교에서 장학금을 늘리고 학교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교육대학원에 재학 중인 음악교육전공 석사과정 학생들의 교과과정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해보기 위한 검사도구인 Music Education Graduate Curriculum Inventory(MEGCI)를 제작하였으며, MEGCI에 대한 구체적인 문항과 내용들은 연구방법의 검사도구에서 자세히 설명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연구 대상(Participants)

본 연구는 서울과 수도권에 위치한 4개의 대학교의 교육대학원에 재학 중인 82명(N=82)의 음악교육 전공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교육대학원 음

악교육 교과과정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해 보았다. 또한 교육대학원에 진학한 이유와 졸업 후 계획, 그리고 교육대학원에서 음악교육 전공 공부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과 그 해결책을 함께 조사해 보았다. 참가자들의 성별 분포를 보면, 한 명의 남자($n=1$, 1%)를 제외하고는 모두 여자($n=81$, 99%)였으며, 참가자들의 평균나이는 27.81($SD=3.21$)로 가장 어린 나이는 23세였고 가장 많은 나이는 37세였다. 참가자들의 학부전공을 살펴보면, 피아노 전공이 29명(35%)으로 가장 많았으며, 작곡 전공이 13명(16%), 국악전공이 7명(9%), 바이올린 5명(6%), 플루트 3명(4%), 클라리넷 2명(2%), 혼 2명(2%)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악으로 표시한 나머지 13명(16%)은 자신들의 세부악기를 표시하지 않았으며, 8명(10%)은 자신들의 학부전공을 표시하지 않았다.

또한, 본 연구에 참가한 음악교육대학원생들은 교육대학원에 진학한 이유를 음악2급 정교사 자격증을 획득하기 위하여($n=34$, 41%), 교사가 되려고($n=26$, 32%), 음악교육과 관련된 풍부한 지식을 얻기 위해($n=5$, 6%), 실질적 학습지도법을 익히기 위해($n=4$, 5%), 방과 후 학생지도에 부족함을 느껴서($n=1$, 1%), 교사로서 전문성 신장($n=1$, 1%), 학위취득($n=1$, 1%), 교육학자가 되기 위하여($n=1$, 1%)순으로 나타났고, 9명(11%)은 교육대학원 진학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다음으로 졸업 후 진로계획을 살펴본 결과, 음악교사/임용교사($n=47$, 57%), 박사 진학($n=11$, 13%), 유학($n=4$, 5%), 학원운영($n=3$, 4%), 개인레슨($n=1$, 1%), 대학 행정직($n=1$, 1%), 피아노 레슨에 관한 교재 저술($n=1$, 1%)순으로 나타났으며, "고민 중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같은 소수의견들이 있었다. 그리고 참가자 중 14명(17%)은 졸업 후 진로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설문조사는 4개 대학의 교육대학원 수업시간에 실시되었으며, 모든 참가자는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였다.

2. 연구의 제한점(Limitations)

본 연구는 다음의 두 가지 제한점을 가진다.

첫째, 이 연구는 4개의 대학교를 임의로 선정하여, 그 4개 대학에 소속된 교육대학원에 재학 중인 음악교육 대학원생들을(N=82) 대상으로 음악교육대학원의 교과과정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였기에, 본 연구의 결과는 이 연구의 대상이 된 학교들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제한하여야 하며, 다른 교육상황에서의 일반화는 신중해야 한다.

둘째, 이 연구의 참가자들은 자발적으로 본 연구에 참여하였기에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4개 대학 교육대학원의 음악교육전공생들의 견해가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3. 검사도구(Questionnaire)

본 연구의 목적인 음악교육 대학원생들의 교육대학원 교과과정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검사도구인 Music Education Graduate Curriculum Inventory(MEGCI)가 제작되었다. 설문지는 총 3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처음부분은 음악교육대학원 교과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한 14개의 문항으로 5단계 Likert 척도(매우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여 측정하도록 제작되었으며, 두 번째 부분은 음악교육대학원 수업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한 12개의 질문들로 역시 5단계 Likert 척도(Strongly Disagree, Disagree, Neutral, Agree, Strongly Agree)를 사용하여 측정하도록 제작되었다. 그 다음 세 번째 부분은 음악교육대학원에서 공부하는 학생으로 가장 어려운 점 3가지를 적고,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물어보는 4개의 주관식 질문으로 구성되었으며, 마지막 부분은 개인적 배경에 관한 부분으로 2개의 객관식 질문과 3개의 주관식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표 1> 음악교육대학원 교과과정 만족도 검사문항의 구성 및 주요내용

검사문항의 주요내용(MEGCI Section 1)

1. 나는 내 학교의 명성에 만족한다.
2. 나는 내 학교가 충분한 장학금을 제공하는 것에 만족한다.
3. 나는 내 학교가 충분히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만족한다.
4. 나는 내 학교의 교과과정이 능력 있는 교사가 되기에 충분한 내용들을 제공하는 것에 만족한다.
5. 나는 내 학교를 졸업한 후 성공적으로 교사가 될 수 있는 것에 만족한다.
6. 나는 내 학교가 제공하는 각 수업들이 미래의 나의 경력에 도움이 되는 것에 만족한다.
7. 나는 내 학교의 교수로부터 매우 많은 것을 배우고 있는 것에 만족한다.
8. 나는 내 학교의 교수들이 각 분야의 뛰어난 전문가인 것에 만족한다.
9. 나는 내 학교의 각 수업의 학급인원 수에 대하여 만족한다.
10. 나는 학교교실 환경에 대하여 만족한다.
11. 나는 학교 주차시설에 대하여 만족한다.
12. 나는 학교의 도서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환경에 만족한다.
13. 나는 대학원 과정을 시작한 후, 가르치는 능력이 향상된 것에 만족한다.
14. 나는 대학원 과정을 시작한 후, 학술적 능력이 향상된 것에 만족한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인 음악교육대학원 교과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한 14개의 문항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학교의 명성에 대한 1개의 질문(신현석 외, 2008, Choi, 2009, Chen, 2006), (2) 장학금에 대한 1개의 질문(Choi, 2009, Chen, 2006), (3) 미래의 경력이나 준비에 대한 4개의 질문들(Choi, 2009), (4) 교수에 대한 2개의 질문들(이선정, 이혜원, 2008; Choi, 2009, Kelly, 1988; Poock & Love, 2001), (5) 학교가 제공하는 교육환경과 서비스에 관한 4개의 질문들((권대봉 외, 2002; 오영재 외, 2001, Choi, 2009), 그리고 마지막으로 (6) 전체 교육대학원 교과과정의 효과에 대한 2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었다(이상기, 조재준, 1999)(표 1).

<표 2> 음악교육대학원 수업들에 대한 만족도 검사문항의 구성 및 주요내용

검사문항의 주요내용(MEGCI Section 2)

1. 나는 내 학교의 수업시간의 철저한 이행에 만족한다.
2. 나는 내 학교의 교수들의 수업준비와 열의에 만족한다.
3. 나는 내 학교의 각 과목들의 수업목표의 명료화에 만족한다.
4. 나는 내 학교의 각 과목들의 수업내용의 구조화에 만족한다.
5. 나는 내 학교의 각 과목들의 수업내용에 교육현장 관련내용 반영도에 만족한다.
6. 나는 내 학교의 각 과목들의 수업내용에 최신이론과 연구동향 소개정도에 만족한다.
7. 나는 내 학교의 각 과목들의 수업방법의 다양화에 만족한다.
8. 나는 내 학교의 각 과목들의 수업들이 이해하기 쉬운 설명들이기에 만족한다.
9. 나는 내 학교의 각 과목들의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유도에 만족한다.
10. 나는 내 학교의 각 과목들의 수업들이 학습자 중심의 수업이기에 만족한다.
11. 나는 내 학교의 각 과목들의 수업내용에 다양한 매체 활용도에 만족한다.
12. 나는 내 학교의 각 과목들의 수업내용에 대한 성적평가 방법의 공정성에 만족한다.

두 번째 부분인 음악교육대학원 수업들에 대한 만족도 측정은 모두 12가지로 각 문항들은 이상기, 조재준(1999)의 연구에서 조사한 항목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직접 각 대학의 수업평가항목들을 비교/검토한 후 검사문항들을 확정하였다(표2).

그 다음 세 번째 부분인 음악교육대학원생들의 가장 어려운 점과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위해 다음의 4개의 주관식 질문이 제작되었다. (1) 음악교육대학원생으로서 가장 어려운 점 3가지, (2) 그 해결방안, (3) 음악교육대학원 교과과정 중 가장 도움이 되는 과목과 그 이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4) 가장 필요한 과목과 그 이유들로 구성되었다. 그리

고 마지막 네 번째 부분에서는 개인적 배경에 관한 성별, 나이, 자신의 학부전공 및 주요악기, 그리고 교육대학원을 선택한 이유와 졸업 후 진로계획들에 관한 주관식 질문들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의 검사도구인 Music Education Graduate Curriculum Inventory(MEGCI)의 타당성을 측정하기 위해 3명의 전문가를 선정해 18개의 서술형(Open-Ended)형태의 질문을 통해 내용타당도(Content Validity)를 측정한 결과, 이 연구의 측정도구인 MEGCI가 음악교육대학원생들의 교육대학원 교과과정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기에 타당성을 가진다는 결론을 내려주었다. 연구의 실효성을 측정하기 위해 음악교육대학원생 3명에게 필드 테스트(Field Test)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3명의 학생들은 이 연구의 측정도구인 MEGCI의 문항들의 내용이 음악교육대학원생들의 교육대학원 교과과정 만족도 측정과 관련이 있으며, 설문지의 지시사항 및 디자인, 그리고 설문작성시간 등이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려주었다. 다음으로 MEGCI의 대한 신뢰도는 Karl Pearson의 단순적률상관계수(Pearson Product Correlation Coefficient)에 의한 재검사 신뢰도(Test-Retest Reliability)를 측정한 결과, 각 문항들이 .86에서 1.00의 범위로 나타났다. 이는 상대적으로 높은 신뢰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모든 질문이 음악교육대학원생의 교과과정 만족도를 측정하기에 적합하다는 판정과 함께 검사도구에 포함되었다.

4. 결과분석(Data Analysis)

본 연구의 검사도구인 Music Education Graduate Curriculum Inventory(MEGCI)는 크게 4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그 중 음악교육대학원 교과과정의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한 Section 1의 14개 문항과 음악교육대학원 수업들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한 Section 2의 12개 문항들은 5단계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도록 제작되었기에 각 요인들의 만족도에 대한 평균(Mean),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 그리고 범위(Range) 등의 서술통계(Descriptive Statistics)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Section

3은 음악교육대학원에서 공부하는 학생으로 가장 어려운 점 3가지를 적고,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물어보는 4개의 주관식 질문으로 구성되었기에 질적 연구 분석방법의 하나인 코딩(Coding Segments) 작업을 거쳐 각 참가자들의 응답을 분석한 후, 비슷한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정리(Grouping Category Segments)하였다. 마지막으로 개인적 배경부분은 두개의 객관식 질문과 3개의 주관식 질문으로 구성되었는데 성별과 학부전공은 빈도수(Frequency)를 측정하였으며, 3개의 주관식 문제 중 참가자들의 나이는 등간척도(Interval Level) 수준이어서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범위로 측정/분석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주관식 문제들은 질적 연구 분석방식을 사용하여 분류(Cording)한 후 역시 빈도수를 측정하였다.

IV. 연구 결과

다음의 <표 3>은 현재 자신이 다니고 있는 음악교육대학원의 교과과정에 대한 만족도의 수준이 가장 높은 요소들에 대한 평균 (Mean; M)과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 SD)를 순서대로 나타낸 것으로 평균의 범위(Range)는 1.86에서 3.85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교수의 전문성(M=3.85; SD=.99), 교수의 가르침(M=3.75; SD=.86), 그리고 각 수업들의 미래의 유용성(M=3.68; SD=.85)이 음악교육대학원 교과과정에 대한 만족도의 수준으로 가장 높은 요소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가르칠 수 있는 충분한 기회(M=2.89; SD=1.02), 각 수업의 학급인원 수(M=2.63; SD=.93), 장학금(M=1.86; SD=.84)에 대한 만족도 수준은 가장 낮은 요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음악교육대학원생들의 음악교육 교과과정 만족도

요인(Factor)	평균(Mean)	표준편차(SD)
교수의 전문성	3.85	.99
교수의 가르침	3.75	.86
각 수업들의 미래의 유용성	3.68	.85
학교의 도서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환경	3.57	.90
대학원 시작 후 학술적 능력 향상	3.48	.84
학교의 명성	3.40	.70
대학원 시작 후 가르치는 능력 향상	3.39	.95
능력 있는 교사가 되기에 충분한 교과과정	3.26	1.03
학교교실 환경	3.24	.97
졸업 후 성공적인 교사가 될 수 있는 것	3.17	.81
학교 주차시설 환경	2.91	.90
가르칠 수 있는 충분한 기회	2.89	1.02
각 수업의 학급인원 수	2.63	.93
장학금	1.86	.84

다음의 <표 4>는 현재 자신이 다니고 있는 음악교육대학원의 수업들에 대한 만족도의 수준이 가장 높은 요소들에 대한 평균 (Mean; M)과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 SD)를 순서대로 나타낸 것으로 평균의 범위(Range)는 2.96에서 3.91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교수의 수업준비와 열의(M=3.91; SD=.71), 수업시간의 철저한 이행(M=3.77; SD=.79), 수업목표의 명료화(M=3.60; SD=.71)가 음악교육대학원 수업들에 대한 만족도의 수준이 가장 높은 요소로 나타난 반면, 수업방법의 다양화(M=3.04; SD=.81), 수업내용에 교육현장 반영도(M=3.00; SD=.85), 수업내용에 최신이론과 연구동향 소개 정도(M=2.96; SD=.84)에 대한 만족도 수준은 가장 낮은 요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음악교육대학원생들의 음악교육대학원 수업들에 대한 만족도

요인(Factor)	평균(Mean)	표준편차(SD)
교수의 수업준비와 열의	3.91	.71
수업시간의 철저한 이행	3.77	.79
수업목표의 명료화	3.60	.71
수업내용의 구조화	3.50	.68
성적평가 방법의 공정성	3.40	.65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유도	3.34	.77
학습자 중심의 수업	3.18	.71
분명하고 이해하기 쉬운 설명	3.17	.72
다양한 매체의 활용도	3.10	.83
수업방법의 다양화	3.04	.81
수업내용에 교육현장 반영도	3.00	.85
수업내용에 최신이론과 연구동향 소개 정도	2.96	.84

다음의 <표 5>는 음악교육대학원생들이 느끼는 가장 어려운 점들에 대한 응답(Qualitative Response)을 질적 연구 분석방법의 하나인 코딩(Coding Segments)작업을 거쳐 각 참가자들의 응답을 분석한 후, 비슷한 카테고리 분류하여 정리(Grouping Category Segments)한 것이다. 이 결과를 요약하면, 음악교육대학원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들은 논문작성(n=22), 음악교육 전임교수/지도교수의 부재(n=15), 임용고시 준비/정보의 부족(n=12), 일하면서 공부하기(n=7), 장학금 혜택 부족(n=6) 등을 음악교육대학원생으로서 생활하는 가운데 가장 어려운 문제로 지적하였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음악교육 전임 및 지도교수를 확보(n=15)하고, 논문작성에 도움이 되는 음악교육 연구방법론 또는 논문작성법에 관련된 강좌를 많이 제공(n=17)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대학원 교과과정을 임용고사에 유용하도록 수정(n=4)하고, 장학금 혜택을 확대해 재정적 어려움을 줄여줄 것(n=4)을 요구하였다. 그 밖에 의견으로 이수과목의 다양성 결여(n=4), 비싼 등록금(n=3), 교생실습에 대한 부담(n=3), 임용

된 선배 또는 교수님의 현장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공간이 없다(n=3) 등의 의견이 있었다.

<표 5> 음악교육대학원생으로서 가장 어려운 요인들(질적응답분류; 복수응답)

요인들(Categories)	빈도 (f)
논문작성	22
음악교육 전임교수/지도교수의 부재	15
임용고시 준비/정보의 부족	12
일하면서 공부하기	7
장학금 혜택 부족	6
이수과목 신청의 다양성 결여	4
비싼 등록금	3
교생실습에 대한 부담	3
임용에 대한 선배나 교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공간이 없다	3
과제가 너무 많다	3
졸업시험과 논문 모두를 요구함	3
컴퓨터나 PPT 사용	2
필수 과목에 대한 수강인원 과다	1
발표수업	1
글쓰기	1
단소나 민요수업의 부재	1
학위취득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1
현장과의 괴리	1
교생학교를 직접 구해야 함	1

마지막으로 다음의 <표 6>은 음악교육 대학원생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과목과 필요한 과목을 분류해 놓은 것이다. 이 결과를 살펴보면, 가장 도움이 되는 과목은 음악교수법등 음악교직 관련 과목이었으며, 가장 필요한 과목은 실제 논문을 작성하는 데 필요한 음악연구방법론/논문작성법 과목과

임용고사와 현장에 도움이 되는 교직 실무와 연계된 과목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음악교육대학원생들의 도움이 되는 교과목과 필요한 교과목 비교
(질적응답분류: 복수응답)

음악교육대학원생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과목들	빈도 (f)	음악교육대학원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과목들	빈도 (f)
음악교수법	25	음악연구방법론/논문작성법	14
교직과목들	14	교직 실무와 연계된 과목	9
음악교육론	14	국악이론	5
음악연구방법론	13	음악실습과목	2
음악지도연구와 평가	8	교육학 개론	1
교육사회학	5		
음악교재 연구법	4		
음악교육철학	4		
합창지휘법	3		
한국사 및 이론	2		
생활지도와 상담	1		
서양음악사	1		
음악논술	1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교육대학원에서 재학 중인 음악교육전공 대학원생들을 대상(N=82)으로 교육대학원 음악교육 교과과정과 음악교육대학원 수업들의 만족도를 측정해 보는 것이었다. 더불어 교육대학원에서 음악교육 전공 공부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과 그 해결책을 함께 조사해 보았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교육 대학원생들의 음악교육대학원 교과과정 만족도를 측정한 결과, 교수의 전문성, 교수의 가르침, 그리고 각 수업들의 미래의 유용성이 가장 만족하고 있는 요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에 재학 중인 한국 학생들 또한 교수의 전문성과 가르침을 가장 만족하는 요인으로 지정한 선행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었다(최진호, 2009). 이러한 사실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한국의 음악교육대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교수들의 전문성과 강의능력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특히 이 연구결과는 한국의 대학들이 교수들의 연구능력과 수업평가 제도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타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였다. 다시 말하면 대학차원에서 교수들의 연구능력과 수업평가 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의 원인이 교수들의 연구능력과 수업평가 제도를 강화하고 있는 제도 때문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러한 제도가 아니더라도 이미 교수들의 전문성과 가르침의 수준이 학생들에게 만족할 만한 수준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새로운 연구를 통해 두 변수의 상관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한 가지 확실한 점은 이 연구결과가 선행연구 조사에서도 밝혔듯이 수요자 중심의 대학원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교수의 경쟁력 이외에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권대봉 외, 2002; 오영재 외, 2001).

반면, 가르칠 수 있는 충분한 기회, 각 수업의 학급인원 수, 장학금에 대한 만족도 수준이 가장 낮은 요소인 것으로 나타난 점은 음악교육대학원생들에게 졸업 후 진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과과정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각 수업의 학급인원 수가 너무 많아 효과적인 수업과 교수와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은 대학이 제공하는 물리적 시설 및 환경, 그리고 교육지원활동이 교수들의 연구능력과 수업평가 제도를 강화하는 것 보다 더 시급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특히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제공하는 장학금이 매우 제한적인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 학교 측에서 보다 많

은 장학금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둘째, 음악교육 대학원생들의 음악교육대학원 수업들의 만족도를 측정한 결과, 음악교육 대학원생들은 교수의 수업준비와 열의, 수업시간의 철저한 이행, 수업목표의 명료화에 가장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음악교육대학원에서 강의하고 있는 교수나 강사들이 수업준비와 강의에 대한 열정이 있으며, 수업시간 또한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각 교과목들이 가지고 있는 수업목표가 명확하여 수업의 방향이 올바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음악교육대학원생들은 수업방법의 다양화, 수업내용에 교육현장 반영도, 수업내용에 최신이론과 연구동향 소개 정도에 대해서는 만족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음악교육대학원에서 강의하는 교수나 강사들이 수업방법을 보다 다양화 하고, 수업내용에 교육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강의 내용들 위주로 수업내용을 선별하며, 수업내용에 최신이론과 연구동향을 소개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요약하면, 음악교육대학원에서 강의하고 있는 교수들의 강의에 대한 열정과 수업준비에는 문제가 없지만, 오랜 시간 강의를 하면서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수업방법을 다양화 시키고 현재 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사실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새로운 최신이론과 연구동향에 뒤처지지 않도록 자기계발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셋째, 음악교육대학원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들은 논문작성, 음악교육 전임교수/지도교수의 부재, 임용고시 준비/정보의 부족, 일하면서 공부하기, 장학금 혜택 부족 등을 음악교육대학원생으로서 생활하는 가운데 가장 어려운 문제로 지적하였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참가자들은 음악교육 전임 및 지도교수를 확보하고, 논문작성에 도움이 되는 음악교육 연구방법론 또는 논문작성법에 관련된 강좌를 많이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대학원 교과과정을 임용고사에 유용하도록 수정하고, 장학금 혜택을 확대해 재정적 어려움을 줄여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 밖에 의견으로 이수과목의 다양성 결여, 비싼 등록금, 교생실습에 대한 부담, 임용된

선배 또는 교수님의 현장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등의 의견들이 있었다.

이러한 내용을 요약하면, 음악교육 대학원생들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들은 그들에게 당장 당면한 문제인 졸업논문작성과 졸업 후 취업(임용고사)과 관련된 점이라는 사실이다. 특히 학위 취득을 위해 졸업 논문을 작성해야 하는 음악교육대학원생들은 그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대학원에서 졸업논문작성이 학위취득에 가장 중요한 과정임에도 연구방법론이나 통계 등, 논문작성에 관계되는 과목이 매우 한정되어 있으며, 실제로 대부분의 교육대학원에 음악교육전공 전임교수가 없어 논문지도를 받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다. 음악교육전공 대학원생들은 이러한 현실이 불합리하며, 이중의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실제로 이 문제는 음악교육 전공생들이 두 번째 어려운 점으로 음악교육전공/지도교수의 부재를 들었다는 것만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음악교육전공생들은 음악교육 전임 및 지도교수를 확보하고, 논문작성에 도움이 되는 음악교육 연구방법론 또는 논문작성법에 관련된 강좌를 많이 제공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특히 이 결과는 교육대학원에서 교과 전임교수확보의 중요성을 알려준 이전 선행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었다(이선정, 신혜원, 2008). 음악교육전공 전임교수의 필요성은 논문작성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다. 본 연구에서 음악교육전공 대학원생들은 교원임용고사나 진로의 어려움이 있을 때 상담할 수 있는 음악교육 전임교수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이러한 결과에서 유추할 수 있는 사실은 음악교육대학원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각 교육대학원들이 음악교육전공 전담교수를 속히 충원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면서도 중요한 점이라는 사실이다.

졸업논문과 음악교육 전임교수의 부재로 인한 어려움 외에 음악교육대학원생들이 지적인 어려움들은 임용고시 준비/정보의 부족, 일하면서 공부하기, 장학금 혜택 부족 등 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앞에서 언급한 진로 문제, 그리고 경제적 문제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으며, 각 대학원은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시급히 마련하여 음악교육대학원생들의 어려움

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간구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나 교육대학원의 교과과정을 임용고사에 유리하도록 바꾸는 문제는 교육대학원이 임용고사를 준비하는 학원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음악교육전공을 운영하고 있는 각 교육대학원들이 수요자 중심의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이 만족할 만한 교육여건을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권대봉, 오영재, 박행모, 손준종, 송선희 (2002). 대학생들의 교육 만족도 결정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교육학 연구*. 40, 181-202.
- 반상진, 신현석, 이은구, 김겸훈 (2004).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대학원 교육의 질 제고 방안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연구과제*
- 이상기, 조재준 (1999). 교육대학원 교육체제에 대한 대학원생의 의견연구. *교과교육연구*. 1, 579-600.
- 이선정, 신혜원 (2008). 서울소재 교육대학원 가정교육전공 교육과정에 대한 운영실태와 교육대학원생의 인식.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0, 173-186.
- 오영재, 박행모, 손준종 (2001). 대학교육의 성과에 대한 대학조직 내제 요인들의 영향력 분석 연구. *교육행정학 연구*. 19, 207-231.
- 신현석, 이은구, 김겸훈, 노명순 (2008). 대학원생이 인식하는 대학원 교육의 질 만족요인 탐색. *교육문제연구*. 31, 49-77.
- 서민원 (1994). 대학교육 효과성에 개념과 측정. *고등교육연구*. 6, 97-136.
- 송미섭 (1999). 교수업적 평가제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문제 연구소 논문집*. 15, 137-157.
- Astin, A. (1985). *Achieving educational excellence: a critical assessment of priorities and practices in higher education*. San

- Francisco, CA: Jossey-Bass.
- Bergquist, W. H. & Armstrong, J. L. (1986). *Planning effectively for educational quality*,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Choi, J. H. (2009). Attitudes of international music students from East Asia toward U.S.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North Texas, 2009). (UMI No. 3377448)
- Chen, L. (2006). Attracting East Asian students to Canadian graduate schools. *Canadian Journal of Higher Education*, 36, 77-105.
- Kelly, S. N. (1988). Marketing your college music program to students. *Music Educators Journal*, 75(3), 27-29.
- Pook, M. C., & Love, P. G. (2001). Factors influencing the program choice of doctoral students in higher education administration. *National Association of Student Personal Administrators Journal*, 38, 203-223.
- <http://www.kmes.or.kr> (한국음악교육학회 홈페이지)

ABSTRACT

Curriculum Satisfaction of Music Education Majors in Korean Graduate Schools of Education

Choi, Jin-Ho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perceived factors that influenced the curriculum satisfaction level and the perceived solutions to problems encountered as music education majors in Korean graduate schools of education (N=82). The Music Education Graduate Curriculum Inventory (MEGCI) was developed for investigating the curriculum satisfaction level and the perceived solutions to problems of music education majors in Korean graduate schools of education. The participants indicated that the professor's expertise, and the professor's teaching, and the usefulness of each class were perceived as the most influential factors impacting the curriculum satisfaction level of music education majors in Korean graduate schools of education. Also, the findings pointed out that the writing thesis for master's degree was the most problematic issue in their lives as music education graduates. For the solutions to the problems, the respondents suggested that the Korean graduate schools of education should hire music education faculties and provide research method classes. Recommendation and conclusion were provided for Korean graduate schools of education.

Key Words : Curriculum Satisfaction, Music Education, Korean Graduates

투고일: 3월 31일, 심사(수정): 6월 1일(6월16일), 게재 확정일: 6월 20일